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 운영했더니

# 중국인 3484명 본국行... 1035명은 추방

### 무사증 악용 제주입국 불법체류·브로커 여전 대대적 단속 실시키로

최근 6개월 동안 제주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국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특별 자진 출

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593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1만3766명(2월 말 기준)의 26%에 이르는 수치다.

자진 출국자 가운데 97.2%(3484명)가 중국인이었으며, 월별로는 출국 기간 막바지인 올해 1~3월(2221명)에 집중됐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이 기간 법무당국에 신고해 출국할 경우 입국을 금지 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조

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도 나섰다. 6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035명으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628명이 제주를 떠난 것이다.

적발 당시 불법체류자의 직업을 보면 건설업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 134명, 음식·숙박 117명, 유흥·다방 26명, 수산 12명, 마사지 10명, 제조 3명, 기타업종 200명, 단속 불법체류 37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불법체류

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는데, 제주에서는 203명의 고용주가 범칙금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와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진출국 기간이 끝난 만큼 건설현장과 유흥·마사지 업종 등 불법체류자가 많이 취업하는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량 전복사고 잇따라... 이틀새 6명 다쳐

제주에서 이틀 사이 차량 전복사고 4건이 발생해 6명이 다쳤다.

24일 오전 2시3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전복돼 차량을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오후 4시45분에는 제주도 교천읍 교래리 5·16도로 성판악휴게소 북측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뒤집혀 차량을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오라동 한라도서관 입구 교차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전복되면서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 사진 또 오전 7시55분에는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5·16도로 물장오리 인근 도로에서 D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전복돼 1명이 다쳤다. 김현석기자

## 간호사 상대 흥기 위협 서귀포의료원 대책 마련

속보=서귀포의료원은 23일 오전 A(48)씨가 의료원 병실에 들어가 입원중인 지인과 간호사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의료원은 입원환자와 간호사 등 야간근무자 보호를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이 함부로 병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현관문을 폐쇄(화재 경보시 자동개폐시스템)하고 있다.

또 비상시 직원들의 행동방법과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보안요원 순찰 강화와 병원내에서 사고 징후가 포착되면 보안요원과 응급실 상주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양파 수확하는 농촌 24일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파 수확작업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월동채소 재배농가 한숨만... 경영소득 분석결과 손익분기점 못미쳐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 시장가격이 생산·유통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 사업을 위해 2018년산 월동채소와 양배추의 품목별 경영소득(2018년 12월~2019년 3월 생산하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동채소의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20kg 상자, 중품기준)은 6546원에 불과했다. 월동채소의 생산비는 4020원, 여기에 운송비와 포장자재, 세척비 등 유통비(3225원)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은 7245원으로 집계됐다.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699원이 나 적은 셈이다. 양배추도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8kg방, 중품기준)은 3054원이었지만 생산비(2120원)와 유통비(1150원)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은

3270원이었다.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216원이나 적었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팔수록 손해를 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지역농협(계통출하)과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성출하기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지원키로 했다. 1순위는 월동채, 2순위는 양배추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kg당 30원으로 물량은 9만7000t 규모다.

하지만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에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9.7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97명 모집에 940명이 원서를 접수해 9.7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사서(일반)로 2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했다. 필기시험은 6월 15일 치러지며 7월 26일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오은지기자

## 원지사 폭행 김경배씨 항소심도 ‘집유’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얼굴에 날계란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성산읍 주민 김경배(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씨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무소속 후보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다. 아울러 이를 제지하려던 원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해 1심에서 폭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 위법성이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역 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던 토론회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많은 도민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문범기자 seb1119@ihalla.com

## 유치원생 3명 실종신고... 경찰 ‘화들짝’

3시간만에 전농로서 발견 유치원생 3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여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내 건입동 모 유치원에 다니는 유모(7)군과 송모(7)군, 문모(7)양 등 3명이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해당 학교 교사가 나서며 수색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5시쯤 해당 학교 교사가 제주 시 건입동 전농로 일대에서 이들 3명을 찾았다. 이들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현석기자

**梁氏中郎將公派宗親會**  
墓祭奉行 및 定期總會 案内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날에 중친 여러분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송조추모원 시제봉행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중친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4월 28일(일) 11:00
- 장 소 : 남원읍 신례리 송조추모원 (속칭 태대동산)  
(지번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753-1)
- 버스운행 : 당일 제주중합경기장 정문 앞에서 오전9시 출발
- 연 락 처 : 회장 양순명 010-4693-0128  
총무 양원철 010-3693-8688

2019. 4.

**梁氏中郎將公派宗親會**  
會長 梁 淳 明

**대 회 개 최 공 고**

제26회 신제주축구회장기 직장축구대회

일시 2019년 6월 8 ~ 9일 (2일간)  
장소 사라봉축구장외 보조구장

■ 주최·주관 : 신제주축구회 ■ 후원 : 제주시축구협회

■ 참가자격  
2019년 5월 31일 현재 해당구장(직장, 협회)에 재직 중인 자

■ 선수구성  
○ 20대 : 2명 출전 ○ 30대 초반 : 3명 출전  
○ 30대 후반 : 3명 출전 ○ 40대 : 3명 출전

■ 팀 구성  
① 팀리부 : 시·도축구협회에서 정한 직장 팀(단, 3명 이상 참가 시 경기)  
② 팀리부 : 직장 동호회 팀

■ 참가신청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 분회 소정양식 ② 재직증명서(일괄) 1부  
③ 팀 단제사진 1매 ④ 참가비 : 이심만원

■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제주축구회 카페(http://cafe.daum.net/sjfc)에서 양식 참조  
담당자 : 사무국장 윤동일, 전화 : 010-3668-0168  
○ 신청서 접수 : 디에스푸드(신라스테이 동쪽)  
○ 메일주소 : yoon0168@parmail.net

■ 접수기간  
2019년 5월 20일 ~ 5월 22일 19:00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5월 22일 ~ 5월 29일 17:00 분회 사무국(열람기간 이후 일체 이의제기 못함)

■ 대표자회의  
2019년 5월 29일 19:00 (장소 : 추후통보)  
○ 임의사항은 없으며 대표자회의 참석으로 대체

■ 시상  
1) 우승 팀 : 팀리부 우승컵, 상금  
한리부 우승기, 우승컵, 상금  
2) 준우승팀 : 팀리부 준우승컵, 상금  
한리부 준우승컵, 상금  
3) 개인 상 : 팀리부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한리부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최다득점상, 지도자상, 모범심판상

**신제주축구회장 이 일**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셋스플렉스 보청기 특 할인 행사!!!**  
월 23주년 별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상충될 혼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40-50% 할인**

Starkey  
찾아가는 스타키그룹 워크샵

그랜드보청기 대표 & 스타키보청기 심상돈 대표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